

문장구역을 활용한 교양한국어 읽기 교육방안 모색

- 라오청대학교를 중심으로 -

박연옥*

〈차 례〉

1. 서론
2. 선행연구
3. 문장구역과 의미단위 끊어 읽기의 관계
4. 의미단위 끊어 읽기의 기준
5. 라오청대학교 교양한국어 읽기 교육방안
6. 결론

[국문초록]

중국 라오청대학교에 개설된 교양필수한국어는 4학기 간 총 216교시로 운영되며 수강생들은 한국어 전공이 아닌 학생들로 한국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와 연관시켜 교양한국어를 교수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이는 대신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읽기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교육방안은 통번역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장구역(Sight Translation) 기법을 도입하여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익히는 외에 어휘와 문법을 흥미롭게 활용하고 선행 지식에 대해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하여 보다 용이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방안은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기 후 단계를 포함한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를 돕고 읽기를 위한 어휘, 문법을 가르치며 글의 전반 내용을 개괄해준다. 읽기 단계에서는 의미단위 끊어 읽기를 통해 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문장구역을 통한 텍스트 이해 정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주제어] 한국어교육, 교양한국어, 읽기 교육방안, 문장구역, 의미단위

* 라오청대학교(聊城大學) 외국어대학 부교수

1. 서론

중국 내 대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형태의 교양한국어¹⁾는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성격을 띠는 강의이다. 시대 흐름의 영향으로 1학년에 진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필수한국어를 개설하는 대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랴오청대학교에서는 2019년에 교양필수한국어를 개설하였다. 이 강의는 4학기 운영되며 학기(18주)당 교육 시수는 54교시²⁾로 총 216교시 가르치게 된다.³⁾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고 한국어 전공자가 아니다. 학습자의 특성, 현지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교양한국어 교육은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학습자가 한국어를 쉽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가지 기능의 통합적인 능력 함양을 지향한다. 그 중에서도 읽기는 다른 언어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모든 언어 능력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김미옥, 1992:6; 박지숙, 2018:1 등). 또한 읽기는 의사소통 능력 가운데 정보의 획득과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기능이다(심상민, 2001:94). 교양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중 양 언어로 되어 있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TV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을 보기도 하고 한국의 대중가요를 배우기도 하는가 하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한류 정보를 접하고 메시지를 전달 받는다. 글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현대에서 읽기 능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중국 대학교에 개설

1)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교양한국어는 한국에 유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생활 및 전공영역에서 한국어로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 아니라, 중국 대학 내 한국어 전공이 아닌, 전교생(全校生) 대상 교양과목인 한국어만을 가르친다. 즉 한국어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교양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이수하는 것에서 한국어 학습이 끝난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모두 교양한국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교과목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2) 중국 내 대학교의 수업 시간을 세는 단위로 1교시를 50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교양필수한국어가 개설되어 있는 중국 내 대학교는 연변대학교, 랴오청대학교 등이 있고 각각 2014년과 2019년에 개설되었다. 교육 시수는 학기당 32교시, 54교시로 되어 있으며 4학기 연속 수강하여 해당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된 교양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읽기 교육방안을 다룬 연구는 더 더욱 드물다.

쿡(2010)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모국어와 연관 지어 습득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교수법이자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⁴⁾ 본 연구를 위해 이루어진 학습자 요구조사⁵⁾에서도 친숙한 모국어가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읽기 수업에서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통번역 교육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장구역 기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문장구역 기법의 선행 훈련인 의미단위 끊어 읽기는 읽기의 필수적인 요건인 문장 구조(강명순, 1999:12 등)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문장구역은 모국어 지식을 활용하여 배운 어휘와 문법 지식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독해 정도를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구역을 통한 라오청대학교 교양필수한국어 읽기 교육방안을 구축하여 학습자들의 읽기 실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는 통번역 교육에서 흔히 사용하는 교수법이 외국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라오청대학교 교양필수한국어 읽기 교

4) 김연수, 『외국어 교육을 위한 통번역 교수법 활용 가능성 고찰』, 『통역과 번역』 19(1), 한국통역번역학회, 2017, 5쪽에서 재인용.

5)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2019년 9월 학기에 전교생 대상 필수과목인 교양한국어를 개설하였으나, 수강신청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선택과목으로 한 학기만 개설되었다. 2020년 9월 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군사훈련이 취소되어 학교 관련 기관에서 신입생의 모든 수업을 미리 배정하였다. 하여 한국어를 특별히 배우고 싶어 별도로 수강신청서를 제출한 12명의 학생들만이 현재 한 개 반으로 편성되어 수강하고 있는 중이다. 하여 이번 요구조사는 이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4일에 4월 30일까지 7일에 걸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결과는 3장에서 제시하게 된다.

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우선 통번역 교수법과 외국어 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내 대학교에 개설된 교양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1) 통번역 교수법과 외국어 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통역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 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통역사를 양성하는 통번역 교육 현장에서는 다른 언어 간 텍스트 전환 문제에 주 초점을 맞추어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창한 언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통번역의 기본 도구인 언어 능력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주목하고, 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다(정철자, 2010:19; 이국희·김명순, 2011:7). 그러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통번역은 오랜 기간 외국어 교육에서 배제되었다(김연수, 2017:5; 蘇建紅·張潤萌, 2020:37).

1980년대 이전까지는 외국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이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발전해오며 상호 간의 교류가 없었으나, 그 이후 두 영역이 공유하는 접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통번역이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수단이자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김연수, 2017:5). 맘크야어(Malmkjæ, 1998)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 없이는 통번역이 불가능한 만큼 통번역을 통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연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유명우(2000:240)은 외국어 교육이 외국어 사용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점을 지적하며 교양영어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번역이론과 실습에 접근해서 번역 전공과정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쿡(Cook, 2010) 역시 외국어를 모국어와 연관 지어 습득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전략이라고 주장

6) 김연수, 『외국어 교육을 위한 통번역 교수법 활용 가능성 고찰』, 『통역과 번역』 19(1), 한국통역번역학회, 2017, 5쪽에서 재인용.

하였다. 정철자(2010:19)는 통번역 교육에서의 교육 이념, 교사와 학생의 역할, 교실 활동, 평가 등은 외국어 교육에서의 의사소통적 접근법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어 교육에서 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통번역 기반 영어 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영어교육에서 번역을 매우 중요시한다. 영어를 핀란드어로 또는 핀란드어를 영어로 번역하도록 함으로써 모국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여 모국어를 발전시키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모국어를 주고 그것에 해당하는 영어표현을 읽기 자료 본문에서 찾기, 모국어 대화문을 주고 짝과 함께 영어로 역할극 하기 등 모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 많다(김영환·정현숙, 2014:282~283). 張超(2015:76~80), 齊小寧(2017:194~195), 陳知武(2018:181~184) 등은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방법은 제2언어 교육에서 날로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내 대학교에 개설된 일본어학과의 교육 사례를 통해 그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한동안 외국어 교육과 통번역 교육을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양자 간 교류를 저해하였으나, 까레레스(Carreres, 2006)이 주장한 바와 같이 향후 두 영역의 교류를 확대한다면 매우 의미 있고 생산적일 것이다.⁷⁾

교수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다. 한 시기에 일단의 교수법이 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다른 방법들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남성우 외, 2006:86). 또한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교수법이란 있을 수 없고 그때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수법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도 부분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법이나 규칙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과연 문장이나 어휘 의미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교사는 맹목적으로 어느 한 교수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각 교수법들이 지니는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적의 교수법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남성우 외, 2006:82).

7) 김연수, 위의 논문, 2017, 7쪽에서 재인용.

2) 중국 대학교 교양한국어에 대한 연구

2018년까지 중국에는 271개 학교에서 한국어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고 그 중에서 교양과정만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106개(그 중에서 대만이 5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정희, 2018:435~436). 이에 반해 중국의 교양 한국어 교육을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물다. 정혜·교우박(2021:205~223)에서는 중국 내 교양한국어 강좌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정혜·교우박(2021:205~223)은 복단대학교, 상해해양대학교, 항주사범대학교, 절강외국어대학교에 개설된 교양선택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교육 시수가 적은 점을 고려한 적절한 교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⁸⁾ 네 개 대학교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복단대학교, 상해해양대학교, 항주사범대학교, 절강외국어대학교의 교양한국어 현황

학교	교과목 성격	학기당 학습자 규모(명)	개설 학기	강의 시수(학기당)	교재
복단대학교 (復旦大學校)	전교생 대상 교양선택과	30~40/반, 두 개 반	1	36	《한국어공공과 (韓國語公共課)》
상해해양대학교 (上海海洋大學校)	외국어대학 내 선택과목	20~30/반, 두 개 반	1	64	《대학한국어 (大學韓國語)》
	전교생 대상 교양선택과	해마다 수강신청 인원이 10명도 안 되어 개설하지 못하고 있음.	2	64	
항주사범대학교 (杭州師範大學校)	전교생 대상 교양 선택	40/반, 두 개 반	2	30	《초급은 교재 없음. 중급교재: 한국어공공과 (韓國語公共課)》
절강외국어대학교 (浙江外國語大學校)	전교생 대상 보수과 (輔修課) ⁹⁾	30~40/반, 한 개 반	3(정독, 말하기로 구분)	160	《아름다운 한국어 (美麗的韓國語)》

8)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양한국어 교재로는 『한국어공공과(韓國語公共課)』(상해외어교육출판사(上海外語教育出版社)), 『신항표공공한국어(新航標公共韓國語)』(북경어언대학교출판사(北京語言大學出版社)), 『공공한국어(公共韓國語)』(대련어공대학출판사(大連理工大學出版社)), 『공공한국어(公共韓國語)』(민족출판사(民族出版社)) 등이 있다.

9) 3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명서만 발급하므로 복수전공과 다르다.

[표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과목의 성격으로 볼 때, 복단대학교, 항주사범대학교, 상해해양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양한국어는 모두 선택과목이다. 그 중에서 복단대학교, 항주사범대학교는 전교생 대상 교양선택과목, 상해해양대학교는 외국어대학 내에서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20~40명으로 구성된 반이 학기당 2개 개설되고 교육 시수는 전교생 대상 강의가 학기당 30~36교시, 외국어대학 내에 개설되는 강의가 학기당 64교시이다. 절강외국어대학교는 보수과목 연속 3학기 개설되고 있으며 교육시수도 학기당 160교시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언어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학기당 30~40명의 수강 인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어 강의가 인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재를 살펴보면 학교마다 각자 다른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복단대학교, 항주사범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공과공』 교재가 교양한국어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항주사범대학교에서 중급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재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어 능력은 나날이 한 나라의 경제발전, 과학기술 혁신, 국제업무 참여, 국제적 협력 등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창한 이래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의 교류는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어 인재에 대한 수요도 더욱 긴박하다. 대학교육의 대중화 속에서 학부 교육 개혁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閔廣芬·尚宇菲, 2020:206). 외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교육이나 학문 발전이 아니라 외국어 교육 정책의 적절성 여부는 국가의 정치·경제·과학기술의 발전과 직결된다(蔡基剛, 2019:5~6). 미래의 국가경제 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은 전공 지식 외에 대상국의 언어에 능통하고 대상국의 상황에 익숙한, 인문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글로벌 외국어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언어와 문학만을 연구하는 외국어 인력은 미래 사회 발전에 적응하기 어렵다. 시대적 흐름의 영향으로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교양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

양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과 절차를 연구하고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수, 학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 교수법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흐름은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참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구역을 활용한 읽기 교육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므로 다음 장에서는 문장구역이란 무엇이고 문장구역과 의미단위 끊어 읽기는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3. 문장구역과 의미단위 끊어 읽기의 관계

통번역대학원과정이나 통번역학과는 물론, 통번역 전공이 아닌 외국어학과를 포함하여 통역 수업에서는 새도잉(Shadowing), 문장구역, 노트테이킹 등 통역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문장구역의 일부 기법은 모국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시수가 적고 학습 부담이 큰 교양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습자에게 적절하다. 문장구역은 원천언어로 되어 있는 문어 텍스트를 읽고 목표언어로 전환하여 재구성하는 행위이다. 출발어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인지한다는 점에서 번역과 동일하지만, 도착어 텍스트를 구두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통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시통역과 유사성을 갖는다(방교영, 2003:107~109). 이와 같이 문장구역은 통역과 번역의 특성을 고루 갖춘 특이한 영역으로 순차통역 및 동시통역 연습을 위한 사전 연습 또는 선수 과목 등으로 통번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방교영, 2003:110; 주진국, 2012:213; 홍설영, 2012:236; 홍설영, 2014:22).

문장구역을 진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절법(segmentation)을 들 수 있다. 이정순(2016:134)는 선형 동시통역¹⁰⁾ 원칙 하의 5대 기법(분절, 예측,

반복, 전환, 단순화)을 ST 메시지 입력단계와 TT 산출 단계로 분류하면 분절 기법은 ST의 의미단위를 나누는 것과 관련되므로 입력단계에서 활용되고 나머지 4개 기법은 TT 산출단계에서 활용되는 기법으로 ST 입력단계에서 의미단위별로 적절히 분절하지 않을 경우 선형 동시통역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정순(2014:146)은 SOV 언어인 한국어를 SVO 언어인 중국어로 동시통역할 때 ST의 의미단위를 잘게 나눌수록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동사가 발화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대응되는 중문 TT를 더욱 신속히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동시통역에서는 분절법이 동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제라고 하였다. 분절법은 통역자가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우선 문장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최소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 단위나 의미 군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김진아, 2018:67). 이는 외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의미단위 끊어 읽기와 매우 비슷하다. 즉 문장을 읽을 때 단어나 작은 구절 단위로 분절해서 읽지 않고 문장의 구조에 따라 끊어 읽는 것이다(김서형, 2008:71).¹¹⁾ 통번역에서의 분절 기법은 의미단위 끊어 읽기와 목적이 일치한다. 즉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¹²⁾ 이러한 의미에서 문장구역의 선행 훈련은 의미단위 끊어 읽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단위 끊어 읽기에 대해서는 역사가 오래된 영어교육에서 2000년대 초

10) 이정순(2016:132)에 따르면 선형 동시통역이란 동시통역 시 ST(출발어, Source Text)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면서 ST가 입력되는 순서를 따라가며 TT(도착어, Target Text)를 생산해내는 방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역사가 ST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통역의 '동시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한다.

11) 끊어 읽기(slashing)란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하나하나 읽는 대신 의미상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 의미 덩어리에 따라 한꺼번에 묶어서 읽는 것으로, 의미 덩어리 사이에 사선(/)을 그어 문장 구조의 파악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한다(윤방하, 1999:4). 박지순(2018:26~27)에서는 조지밀러의 『마법의 숫자 7±2: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에서 나온 기억법을 제시하였는데 “‘나는 밥을 먹는다.’에서 ‘나-는-밥-을-먹-는-다.’보다 ‘나는-밥을-먹는다.’ 그리고 그보다는 ‘나는-밥을먹는다.’가 더 효과적인 읽기가 된다.”고 하면서 의미 덩어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2) 古煥奎(2008:35)에서는 동시통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법으로 예측하기(anticipation), 기다리기(waiting), 스톨링(stalling), 청킹(chunking) 등이 있다고 하였다. 葉君武(2014:167)에서도 ‘청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斬雪竹(2007:126)에서는 ‘어단절분(語段切分, segmen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김아영(2013:49~62)는 중국 세계지식출판사(世界知識出版社)에서 2012년에 출판한 <한중 수료 20주년 한중 간 주요 연설 및 문헌집>을 연구 대상으로 번역문의 문장 나누기 지점을 다루었는데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서의 ‘의미단위 끊어 읽기’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반을 전후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계속되어 왔다.¹³⁾ 중국어교육에서도 2010년을 전후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¹⁴⁾ 한국어교육에서 역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끊어 읽기의 필요성을 다루는가 하면 끊어 읽기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거나 학습자의 끊어 읽기 양상을 조사하여 끊어 읽기 기준, 유의점, 교육방안 등을 제시하였다(SHEN LINGYU, 2018; 박지숙, 2018; 신예지, 2016; 유남희, 2016; 임은빈, 2016; 류윤정, 2013; 김영란, 2012; 김진만, 2012; 임예영, 2012; 김서형, 2008; 원동연·김난희·정연희, 2007).

의미단위 끊어 읽기 외에도 문장구역의 기법에는 바꿔 말하기, 통사구조 변환 등 전략이 있으며 동사나 맥락 명시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다리기’, ‘예측’ 등 동시통역의 일반 전략이 문장구역에 적용되기도 한다(허지운, 2020:7~8). 본 연구는 교육 시수가 적고 한국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교양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효과적으로 숙지함과 아울러 배운 지식을 실제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어를 보다 용이하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장구역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의미단위 끊어 읽기 외의 전략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한 전략은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 외에도 통번역 능력까지 향상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바꿔 말하기, 통사구조 변환 등 전략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학습자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장구역 기법의 선행 훈련은 의미단위 끊어 읽기이다. 한·중 방향 문장구역 시, 통역의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의미단위 끊어 읽기’이고 이 연습은 언어유형의 차이인 어순, 문장 구조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한다(김진아, 2018:76). 또

13) 관련 연구로는 강정미(2019), 조영희·고혜정·김동일(2017), 윤민자(2013), 정인영(2012), 문수정(2008), 이진미(2007), 모상욱(2007), 박남수(2006), 이인아(2005), 김진배(2004), 최진석(2003) 등이 있다.

14) 관련 연구로는 고금봉(2018), 서정아(2017), 한채현(2013), 임지희(2011), 이동은(2010), 심소희(1999) 등이 있다.

한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끊어 읽기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었다(류윤정, 2013; 유남희, 2016 등). 임예영(2012), 박지숙(2018) 등에서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의미단위 끊어 읽기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문장구역은 습득된 지식의 반복 학습과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장구역을 활용하는 것은 새로 배운 문법 지식과 어휘를 문장구역을 통해 활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함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주목적이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을 잘 소화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합당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Albrecht Huwe, 2016:44). 이로 미루어 볼 때 문장구역 기법은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한국어 교육에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필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문장구역 기법의 선행 훈련인 의미단위 끊어 읽기 기준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의미단위 끊어 읽기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4. 의미단위 끊어 읽기의 기준

의미단위 끊어 읽기 기준을 다룬 연구로는 원동연·김난희·정연희(2007), 김서형(2008), 고승연(2010), 신예지(2016:14),¹⁵⁾ 임은빈(2016:33~34), 박지

15) 초급 단계 기준

1. 주어부, 술어부
나는/ 커피를 마셔요./
그는/ 집에 갔어요./
2. 수식 관형어(구)와 피수식어 체언
나는/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새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는/ 나의/ 누나입니다./
3. 수량 단위나 나열구
이 사과는 한 개에/ 500원입니다./
4. 독립어(간투사, 감탄사 등)
수진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니요/ 그는 오지 않아요./
5. 독립어(간투사, 감탄사 등)

숙(2018)이 있다. 원동연·김난희·정연희(2007)은 문장 성분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하여 문장 성분에 따라 끊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단문인 경우에는 짧은 문장 안에서도 필요 이상의 끊어 읽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복문의 경우 결속력이 매우 강한 문장 성분들은 그 긴밀도에 따라 휴지를 두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문장 성분을 의미 단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서형(2008:20)은 초급 단계에서는 ‘주어부와 술어부, 수식 구조, 수량 단위나 나열구 뒤, 독립어 뒤, 주제어 및 초점, 강조의 표현 어구 뒤, 접속어미 뒤’의 휴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휴지의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신예지(2016:14)에서도 각주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휴지의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임은빈(2016:33~34)은 중급 학습자 대상 끊어 읽기 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박지숙(2018:21~59)에서는 국어학적 끊어 읽기 기준을 선정한 김성규(1999),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끊어 읽기의 기준을 선정한 김서형(2008)의 끊어 읽기 기준을 참고하여 두 연구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제 한국어 초급 읽기 텍스트에 적용하여 문헌연구가 초급 읽기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초급 읽기 텍스트의 특징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할 기준에 대한 보완점을 제안하였고, 한국어 교사¹⁶⁾의 기준도 반영하여 수업 현장에서 끊어 읽기를 교수할 때 활용할

수진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니요,/ 그는 오지 않아요./

6. 주제어, 초점, 강조의 표현어구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남을 설득할 때에는/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7. 접속어미

이것은 한 개에 500원이고/ 저것은 세 개에 1,000원입니다./

그녀는 머리가 아파서/ 집에 갔습니다./

8. 띄어 쓴 곳은 붙여 읽는 것 가능

9. 붙여 쓴 곳은 끊어 읽는 것은 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절 안에서는 끊어 읽기 경계를 두지 않는다.

16) 이 연구에서 구성한 전문가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한국어를 가르쳐 온 교사 한 명과,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및 대학 학부 한국어 강의의 경력을 지닌 교사 두 명이다.

수 있는 9개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문장의 시작 전, 후로 끊어 읽는다.
2. 주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단 주어 뒤에 부사어와 연결어미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 각 부사어와 연결어미 뒤에서 끊어 읽는다.
3. 연결어미 뒤에서 끊어 읽는다.
4. 부사어가 꾸미는 용언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부사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부사어가 다른 부사나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역시 (첫 번째) 부사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¹⁷⁾
5. 목적어 뒤에 타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 끊어 읽는다.
6. 관형어 뒤에 체언이 바로 오지 않을 경우 끊어 읽는다. 관형어가 두 번 이상 나열된 경우, 먼저 나온 관형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7. 독립어와 강조의 표현 뒤에서 끊어 읽는다. 접속어의 경우 문장의 길이에 따라 접속어 뒤에서 바로 끊어 읽거나 접속어를 포함한 문장을 한 호흡으로 처리하여 읽을 수 있다.
8. 나열구 뒤에서 끊어 읽는다.
9. 인용보문의 앞, 뒤로 끊어 읽는다. 인용보문자 뒤 서술어까지를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다.

박지숙(2018)은 한국어가 갖는 언어 구조와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급 학습자를 위한 끊어 읽기 기준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검증된 초급 읽기 텍스트를 읽도록 하고, 끊어 읽은 위치를 연구자가 정리한 기준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시한 끊어 읽기 기준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세부적이다. 예를 들면 ‘주어 뒤에 부사어와 연결어미가

17) 박지숙(2018)에서는 부사어 뒤에 용언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용언 뒤에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예로 ‘이주/ 예쁘게 피었구나’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사어 뒤에 용언이 바로 나오는 경우로 ‘이주 예쁘게/ 피었구나’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바로 이어지는 경우’, ‘연결어미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 ‘부사어가 꾸미는 용언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와 나오는 경우’, ‘관형어 뒤에 체언이 바로 오지 않을 경우’, ‘독립어가 들어있는 짧은 문장의 경우’, ‘나열구가 긴 문장’, ‘인용보문자 뒤의 서술어가 긴 경우와 짧은 경우’ 등 다양한 문장에 대한 끊어 읽기 방법을 추가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준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초급 학습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급 읽기 텍스트에서 문장을 선정한 것 역시 본 연구의 취지와 잘 맞는다.

10개의 기준 가운데 1번 기준은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상위의 성격을 갖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번 기준에서는 ‘주어+부사어’, ‘주어+연결어미’ 구성뿐만 아니라 ‘주어+부사+연결어미’ 구성까지 다루고 있다. 3번 기준에서는 연결어미 뒤에서 끊어 읽는 경우 외에도 연결어미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때 뒤에 나온 연결어미에서 끊어 읽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물론 어절이 여러 개인 경우 연결어미마다 끊어 읽을 수도 있다. 또한 단문에서나 장문에서나 연결어미는 적절한 쉼의 위치가 된다고 밝혔다. 4번 기준은 부사어 뒤에 꾸밈을 받는 용언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는 부사어 뒤에서, 부사어 뒤에 용언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용언 뒤에서, 그리고 부사어가 다른 부사나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역시 (첫 번째) 부사어 뒤에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5번 기준은 목적어 뒤에 타동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 목적어 뒤에서 끊어 읽기를 실행하면 짧은 호흡으로 읽기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끊어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목적어 뒤에 타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김서형(2008)과 김성규(1999)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 이밖에 ‘제가 비싸지 않고 깨끗한 곳을 찾아 볼게요’와 같이 목적어가 긴 문장에 대한 끊어 읽기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장은 박지숙(2018:38~39, 45)의 분석 자료에서 발견되었고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어 교사들은 목적어 뒤에서 끊어 읽기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장에 대한 끊어 읽기도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목적어 뒤에서 끊어 읽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6번 기준에서 제시한 관형어 뒤에 체언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박지숙(2018:39)의 조

사에서 적게 발견되었으나, 한국어에는 관형사가 따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장은 실제로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고립어인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는 어절이 길고 많아, 끊어 읽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읽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7번 기준은 ‘접표’ 등을 통한 제시어, 접속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는 것이다. 호칭어, 접속어는 읽기 텍스트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독립어로 이 뒤에서 끊어 읽기를 실행할 때 자연스러운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독립어가 들어있는 문장이더라도 ‘그러니까 성공한 거 예요’와 같이 문장의 길이에 따라 한 호흡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본다. 8번 기준에서는 나열구가 긴 문장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타 9개의 기준에 따라 끊어 읽기를 실행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9번 기준에서는 인용보문자 뒤의 서술어의 길이에 따라 끊어 읽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인용보문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타 9개 기준을 적용하여 끊어 읽을 수 있다고 명시해줘야 한다.

김성규(1999)에서 제시한 ‘보어 뒤 ‘되다, 아니다’가 바로 오지 않을 경우’의 문장이 박지숙(2018:40)에서 선정한 읽기 텍스트에서 한 문장도 나타나지 않아 기준에 넣지 않았다. 이 기준은 보어 뒤에 ‘되다, 아니다’가 바로 오지 않을 경우 보어 뒤에서 끊어 읽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박지숙(2018:62)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기준과 실제 한국어 교사, 학습자의 끊어 읽기 위치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읽기 자료가 10개에 지나지 않아 수량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되다, 아니다’가 초급에서 나타나는 어휘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대로 두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9개 기준, 박지숙(2018)의 논의,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초급 학습자를 위한 끊어 읽기 기준을 아래와 같이 10개로 제시한다.¹⁸⁾

18) 해당 예문들은 3번 기준의 ‘밥을 먹고 산책하니까/ 소화가 잘 된다’, 9번 기준의 ‘아까는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하더니?’를 제외하고 박지숙(2018)에서 가져온 것이다.

[표2] 의미단위 끊어 읽기 10개 기준

끊어 읽기 기준	예문
1. 문장의 시작 전, 후로 끊어 읽는다.	-/오늘 영화를 보러 가요./
2. 주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단 '주어+부사어', '주어+연결어미' 구성의 경우 부사어와 연결어미 뒤에서 끊어 읽는다. 전자의 경우 화자의 의도에 따라 끊어 읽기의 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주어+부사+연결어미' 구성에서 연결어미 뒤에서 끊어 읽는다.	-수미는/ 학교에 갑니다. -나는 지금/ 숙제를 한다. -나는/ 지금 숙제를 한다(나는 이제야 숙제를 한다). -교실이 더러우면/ 청소를 하세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아쉽습니다.
3. 연결어미 뒤에서 끊어 읽는다. 연결어미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 뒤에 나온 연결어미에서 끊어 읽는다. 어절이 여러 개인 경우 연결어미마다 끊어 읽을 수도 있다. 단문에서나 장문에서나 연결어미는 적절한 끊어 읽기의 위치가 된다.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 늦었어요. -밥을 먹고 산책하니까/ 소화가 잘 된다.
4. 부사어가 꾸미는 용언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부사어 뒤에서, 부사어 뒤에 용언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용언 뒤에서 끊어 읽는다. 부사어가 다른 부사나 체인을 수식하는 경우 역시 (첫 번째) 부사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주 예쁘게/ 피었구나. -꽃이 예쁘게/ 활짝 피었습니다. -겨우/ 세 권 남았다.
5. 목적어 뒤에 타동사가 바로 이어져 나올 경우 타동사 뒤에서 끊어 읽는다. 단, 목적어가 긴 문장은 목적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목적어 뒤에 타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을 경우 목적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상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리세요. -제가 비싸지 않고 깨끗한 옷을/ 찾아 볼게요. -밥을 먹고/ 방을/ 깨끗하게 치우세요.
6. 관형어 뒤에 체언이 바로 오지 않을 경우, 관형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관형어가 두 번 이상 나열된 경우, 먼저 나온 관형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책에서 본/ 그 산은/ 정말 아름다웠다. -친구가 그런/ 공책의 그림
7. 독립어와 강조의 표현 뒤에서 끊어 읽는다. 접속어의 경우 문장의 길이에 따라 접속어 뒤에서 바로 끊어 읽거나 접속어를 포함한 문장을 한 호흡으로 처리하여 읽을 수 있다.	-철수 씨,/ 같이 나갈까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8. 나열구 뒤에서 끊어 읽는다. 나열구가 길게 제시된 경우 본 연구의 기타 9가지 원칙에 따라 중간에 끊어 읽기를 실행한다.	-양말은 한 켤레에/ 2000원이고/ 스타킹은 하나에/ 2500원입니다.
9. 인용보문의 앞, 뒤로 끊어 읽되, 인용보문자 뒤 서술어가 짧은 경우 서술어까지를 한 호흡으로 읽고 서술어가 긴 경우 인용보문자 뒤에서 끊어 읽는다. 인용보문이 긴 경우 본 연구의 기타 9가지 원칙에 따라 끊어 읽는다.	-친구가/ 그 영화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 -민수 씨가/ 감기에 걸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아까는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하더니?
10. 보어 뒤에 '되다, 아니다'가 바로 오지 않을 경우 보어 뒤에서 끊어 읽는다.	-그 사람/ 과장이/ 언제 됐나?

또한 본 연구는 교양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에게는 의미단위 끊어 읽기 기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을 제인하지 않는다. 교사가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끊어 읽을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박지숙(2018)에서 제시한 학습자를 위한 6개의 기준은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밖에 고승연(2010)에서 중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일부 초급 학습자들에게서만 띄어쓰기에 의한 의미 융합 간섭 현상이 발견된 임예영(2012)의 연구 결과나,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끊어 읽기를 하는 학습자에게서 읽기 이해 부진이 발견되는 라오청대학교의 상황으로 미루어 입문 과정에서 띄어쓰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화석화되어 앞으로 문장 구조 이해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절의 중간을 끊어 읽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3장과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읽기 교육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5. 라오청대학교 교양한국어 읽기 교육방안

1) 학습자 요구조사

교양한국어를 81교시 수강한 학습자들에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방안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2021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 간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어를 81교시 수강한 12명의 교양한국어 수강생(남학생 8명과 여학생 4명)이고 이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의미단위 끊어 읽기를 10교시 정도 경험하였다. 조사 내용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선호하는 연습 방법을 선택하십시오’와 ‘희망하는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의 두 가지였다.¹⁹⁾ 첫 질문의 선택 사항은 1번이 ‘단어 외우

기, 2번이 ‘혼자 읽기’, 3번이 ‘문제 풀이’, 4번이 ‘따라 읽기’, 5번이 ‘(구문) 베껴 쓰기’, 6번이 ‘통역’, 7번이 ‘번역’이고 8번에 ‘기타’라는 열린 질문을 주어 학습자의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답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선호하는 연습 방법

选项	小计	比例
背单词	4	33.33%
自己读课文 (不跟读)	5	41.67%
解题 (包括TOPIK套题)	4	33.33%
跟读	7	58.33%
抄写 (主要是指句子)	4	33.33%
口译	3	25%
笔译	6	50%
其它 (请具体写) [详细]	0	0%
本题有效填写人次	12	

[표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따라 읽기’가 5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번역’이다. ‘혼자 읽기’가 41.67%를 차지하였는데 필자의 교육 경험에서 볼 때 학습자들의 현재 언어 능력으로 음성 파일이나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읽어 내려가며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학습자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볼 때 ‘혼자 읽기’는 학습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기준성(2010:51)의 연구 결과에서도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보다 읽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등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목표언어에 대한 지식과 목표언어 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설문에 응한 수강생들을 가

- 19) 본 연구를 위한 의도적인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읽기’에 한정하지 않고 연습 방법 역시 다양하게 작성하였으며 열린 질문도 추가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영어나 일본어를 오래 배워왔고, 대부분은 자모와 발음 교육이 끝난 이후부터 줄곧 수행해오던 선택 사항들이기에 요구조사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르켰던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역시 목표언어에 대한 기초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습자일수록 따라 읽기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이 5명의 수강생은 왜 ‘혼자 읽기’를 선택하였을까? [표3]에 제시되어 있는 연습 방법은 교실과 교실 밖의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나, 교육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교실 밖에서 학습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학습자는 교사의 도움을 자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교재는 MP3의 형태로 되어 있어,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반복해서 듣기가 불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혼자 읽기’를 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아래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4]는 ‘희망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대답이다.

[표4] 학습자가 희망하는 교육 방법

选项	小计	比例
跟着课文音频资料或者老师多进行跟读训练, 熟悉韩国语发音。	8	 66.67%
通过抄写训练熟悉韩国语句子结构。	10	 83.33%
充分利用母语(中文), 进行翻译练习, 如口译模拟训练等, 学以致用。	10	 83.33%
其它(请具体写) [详细]	0	 0%
本题有效填写人次	12	

[표4]의 선택 사항은 1번이 ‘본문의 음성 과일을 듣거나 교사를 따라서 읽으면서 한국어 발음을 숙지하기’, 2번이 ‘베껴 쓰기를 통해 한국어 문장 구조를 숙지하기’, 3번이 ‘모국어를 충분히 활용하여 번역 연습하기(통역 현장 실천 등)’, 4번이 ‘기타’이다. [표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모국어를 활용하여 통역을 수행함으로써 배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교육 방법과 베껴 쓰기를 통해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숙지하는 교육 방법을 선호하였다. 학습자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구조사를 실시한 이후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기존에 진행해온 의미단위로 끊어서 따라 읽기, 한국어 구문 베껴 쓰기, 모국어와 접목시켜 배운 지식을 실제로 활

용하는 통번역 연습 등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연습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숙지하여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고 답하였다. 학습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 숙지와 모국어를 활용한 통번역 훈련이다.

이러한 학습자 요구 사항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학습 결과와 요구 사항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구조사가 끝난 이후 8교시 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방안을 적용하여 지문 두 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일치 여부를 검증하였다. 질문으로는 ‘흥미롭다’, ‘한국어 응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자신감이 생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학습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이 기법을 교실 수업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등이었다. 대답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흥미롭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3.33%, ‘대체로 그렇다’가 58.33%, ‘그렇지 않다’가 8.33%로 학습자들은 문장구역 기법을 활용한 수업이 비교적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학습자들은 흥미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한국어 응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41.67%, ‘대체로 그렇다’가 58.33%로 실전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안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자신감이 생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6.67%, ‘대체로 그렇다’가 83.33%로 외국어교육에서의 모국어 활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 ‘학습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습자는 16.67%, ‘대체로 그렇다’가 75%, ‘어느 정도 그렇다’가 8.33%를 차지하였고 ‘앞으로도 이 기법을 교실 수업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3.33%, ‘대체로 그렇다’가 58.33%, ‘어느 정도 그렇다’가 8.33%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좀 더 긴 시간을 적용한다면 보다 나은 교육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 요구조사, 학습 결과와 학습자 요구 사항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문장구역 기법을 활용한 읽기 교수법이 현지 교양한국어 수강생에게 적절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즉 친숙한 모국어를 교양한국어 읽기 교육에 충분히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를 접근하게 될 수 있고 따라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읽기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교육방안

읽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화롭게 한데 합쳐질 때 일어나는 복잡한 지적 기능이며 언어 능력으로, 1970년대 이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읽기 모형으로는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상호 작용 모형 등 세 가지가 있다(김미옥, 1992:10~11). 상향식 모형이란 문자의 확인으로부터 전체 글의 의미를 확인하는 순서 즉 기능중심지도 과정이다. 하향식 모형이란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먼저 전체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단락의 구조, 문장, 단어의 순서로 알아가는 것 즉 활동중심지도 과정이다. 상호 작용 모형이란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전략중심지도 과정이다. 익숙한 독자는 하향식 모형과 상호 작용 모형, 미숙한 독자는 상향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심상민, 2001:97). 읽기 교육의 절차는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기 후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읽기 전 단계는 학습자의 스키마 활성화를 돕고 어휘,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단계이고, 읽기 단계는 훑어 읽기와 뜯어 읽기를 적절히 혼용하여 전체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읽기 후 단계는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검증하고 학습 내용을 강화하는 단계이다(김정숙, 1996:303; 심상민, 2001:108; 김중섭, 2002:58~60; 이정희·김지영, 2003:211~213; 김태자·김혜숙, 2006:258~265 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읽기 교육방안은 초급 학습자를 위한 것이므로 읽기 과정은 상향식 모형이 적절하다.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읽기 교육 절차는 읽기 전, 읽기, 읽기 후의 세 단계로 설계하였고 읽기 지도의 단계별 목표

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1) 읽기 전 단계

교양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읽기 전 단계에서는 그림 또는 삽화를 보여주면서 스키마 활성화를 도와준다. 이어 읽기를 위한 어휘, 문법을 가르치고 글의 전반 내용을 개괄해준다. 새로 배우게 되는 특정 어휘와 문법을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중국어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2) 읽기 단계

읽기 단계에서는 의미단위 끊어 읽기를 통해 지문의 대체적인 정보를 포착하고 나아가 단어, 문장, 단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학습자가 의미단위 끊어 읽기 기준에 대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교사의 지도에 따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준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의미단위 끊어 읽기가 강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내용 이해를 마친 후 역시 낭독 훈련에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언어유형학적으로 차이가 큰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교육 시수가 적고 한국어에 대한 기초가 없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미단위 끊어 읽기 훈련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3) 읽기 후 단계

읽기 후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증하는 단계로 의미단위 끊어 읽기를 바탕으로 문장구역을 수행한다. 즉 한국어로 된 글을 중국어로 시역하고 다시 중국어 번역문을 보면서 핵심 단어, 문법에 입력강화를 주어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함으로써 배운 어휘와 문법을 반복해서 실천하고 지

문 내용을 숙지하도록 도와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읽기 후 단계 활동으로 관련 글 읽기, 토론, 쓰기, 과제 수행, 발표 등이 사용되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대학교 교양 한국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모국어를 활용함으로써, 학습 부담감을 덜어주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5]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학한국어1』 제6과의 일부를 수업 자료로 선정하여 제시한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이다.

[표5] 『대학한국어1』 제6과 읽기 수업 지도안

주제	물건 사기
수업 자료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나는 점심을 먹고 친구와 같이 동대문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가방과 구두를 샀습니다. 신발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친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학교 앞에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동대문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읽기 전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는 별도로 준비한 지문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관찰하게 하여 스키마 활성화를 돕는다. 2. 그림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여 주제를 자연스럽게 도입한다. 3. 목표 어휘, 문법을 제시하고 가르친다. 4. 지문의 전반 내용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이야기해준다.
읽기 단계 ²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가 별다른 휴지 규칙 없이 한 번 읽고 학습자에게 얼마나 이해했는지 물어본다. 2. 교사가 띄어쓰기를 경계로 끊어 읽고 학습자에게 얼마나 이해했는지 물어본다. 3. 아래의 표와 같이 교사가 의미단위로 끊어 읽고 학습자에게 얼마나 이해했는지 물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나는/ 점심을 먹고/ 친구와 같이/ 동대문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가방과 구두를 샀습니다./ 신발도 사고 싶었지만/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친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학교 앞에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동대문시장에 가려고 합니다.</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세 번째 끊어 읽기를 기준으로 학습자들에게 1~2번 따라 읽도록 하고 지목하여 읽도록 한다. 5. 의미단위로 끊어 읽으면서 1차적으로 지문의 대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다시 읽으면서 단어, 문장, 단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20) 의미단위 끊어 읽기의 <1>, <2>, <3>은 김서형(2008:22)을 참고하였다.

읽기 후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가 의미단위에 근거하여 끊어 읽는 부분에 사선을 긋는다. 2. 학생1에게 문장구역을 하면서 배운 지식을 실천하도록 한다. 3. 학생2에게 학생1이 통역한 것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4. 교사는 정확한 중국어 번역문을 제시하여 입력강화 시킨 부분에 주목하면서 배운 어휘, 문법, 표현을 물어보고 학습자가 한국어로 대답하도록 한다. 5. 교사는 단어, 조사, 어미, 핵심표현 등을 정리해준다.
---------	--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랴오청대학교에 개설된 교양필수한국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장구역 기법을 활용한 교양한국어 읽기 교육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교육방안은 한국어의 문장 구조 숙지하기, 배운 지식을 실제에 활용하기에 주목하면서 통번역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장구역 기법을 도입하여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숙지하는 외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흥미롭게 활용하고 선행 지식에 대해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하여 보다 용이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교육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구역과 의미단위 끊어 읽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의미단위 끊어 읽기의 기준을 확정하였다. 이어 연구자가 제안하는 교육방안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가 선호하는 연습 방법과 희망하는 교육 방법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 사항이 학습 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문장구역 기법을 활용한 읽기 교육방안은 읽기 전, 읽기, 읽기 후의 세 단계를 포함한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 스키마 활성화를 도와주는 단계이다. 그리고 어휘, 문법을 가르치고 지문의 전반 내용을 개괄해준다. 읽기 단계에서는 의미단위 끊어 읽기를 통해 단어, 문장, 단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의미단위 끊어 읽기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익히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한국어 학습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²¹⁾ 이 과정에서 중한 양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설명해주는 것도 좋다. 의미단위 끊어 읽기 교육

이 끝나면 교사가 의미단위에 따라 끊어 읽는 위치를 표기해주고 학습자에게 주어진 지문을 읽으면서 문장구역을 하도록 한다. 즉 읽기 후 단계이다. 문장구역이 끝나면 교사는 정확한 번역문을 제시하여 입력강화 시킨 부분에 주목하면서 학습자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여 배운 지식에 대한 반복 학습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단어, 조사, 어미, 핵심표현 등을 정리해 준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것 외에 통번역 능력까지 향상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 정도의 문장구역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방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양한국어 수강생들이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효과적으로 숙지하고 배운 지식을 실제에 적극 활용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한국어를 쉽고 흥미롭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장구역 기법을 교양한국어 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지금까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중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양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에 반해 관련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참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충분하고 적절한 시간을 배정하여 수업을 진행한 다음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교육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또한 매우 필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이어 교육방안 연구를 비롯한 중국의 교양한국어 교육을 위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1) 김서형(2008:23)은 초급 과정에서부터 의미 단위에 대한 개념을 안다면 하나의 단위처럼 행동하는 서술어의 논항 즉 조사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읽기 속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의미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의미적으로 유기적인 글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 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어휘 의미 중심의 이해에 의존하는 듣기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참고문헌

- Albrecht Huwe, 『한국어교수법과 번역교수법』, 『국제한국어교육』 2(1),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2016, 33~51쪽.
- SHEN LINGYU,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소리 내어 읽기 양상 분석 연구 - 의미단위로 끊어읽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149쪽.
- 강명순, 『독해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9, 1~15쪽.
- 강정미, 『의미단위 인지를 통한 영어지문낭독이 독해 유창성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34쪽.
- 고금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낭독 교수·학습 지도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132쪽.
- 고승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끊어 읽기 양상』,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4쪽.
- 기준성,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별 읽기 전략 연구』, 『한국어 교육』 2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29~58쪽.
- 김미옥,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9, 5~14쪽.
- 김서형, 『의미 단위 지도를 통한 한국어 읽기 능력신장 방안』,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2008, 69~93쪽.
- 김성규, 『잠재적 휴지의 실현』, 『선청어문』 27(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9, 831~859쪽.
- 김소진, 『의미단위 띄어 읽기 전략 교수가 읽기 이해 부진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26쪽.
- 김아영, 『중한 및 한중 번역 사례로 본 문장 나누기의 전략과 기법』, 『통역과 번역』 15(2), 한국통역번역학회, 2014, 39~65쪽.
- 김연수, 『외국어 교육을 위한 통번역 교수법 활용 가능성 고찰』, 『통역과 번역』 19(1), 한국통역번역학회, 2017, 1~16쪽.
- 김영란, 『한국인과 중국인의 한국어 문장 끊어 읽기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74쪽.
- 김영환·정현숙, 『핀란드의 영어교육환경의 현황 및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4(6), 한국비교교육학회, 2014, 273~295쪽.
- 김정숙,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읽기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6, 295~309쪽.
- 김중섭,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 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47~67쪽.
- 김진만, 『한국어 낭독체의 발화속도와 휴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81쪽.
- 김진배, 『소리내어 끊어 읽기를 통한 문장 분석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50쪽.
- 김진아, 『효과적인 한·중 문장구역 기법 - 분절법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3), 한국번역학회, 2018, 63~79쪽.
- 김태자·김혜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화용론적 인식지도』, 『인문과학연구』 11,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06, 249~280쪽.

- 남성우 외,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2006, 82~86쪽.
- 류윤정, 『끊어 읽기가 한국어 읽기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15쪽.
- 모상욱, 『끊어 읽기가 고등학교 영어 독해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94쪽.
- 문수정, 『의미단위(Sense Group)별 끊어읽기를 통한 영어독해능력 향상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140쪽.
- 박남수, 『효율적인 영어 독해를 위한 속도 지도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26쪽.
- 박지숙, 『독해력 향상을 위한 초급 한국어 끊어 읽기 기준 선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85쪽.
- 방교영, 『접속사(4TO6BI(4TO6)문의 문장구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7,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03, 107~123쪽.
- 서정아, 『중국어 끊어읽기 분석과 지도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174쪽.
- 신예지, 『한국어 의미단위 끊어 읽기 교육 방안 -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92쪽.
- 심상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읽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우리어문연구』 17, 우리어문학회, 2001, 93~120쪽.
- 심소희, 『한국인의 중국어 문장 끊어읽기에 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8, 한국중국언어학회, 1999, 213~239쪽.
- 원동연·김남희·정연희, 『5차원 한국어 학습법』, 김영사, 2007.
- 유남희, 『한국어 끊어 읽기 지도 방안 연구-초등 문화 배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43쪽.
- 유명우,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3, 한국번역학회, 2000, 229~248쪽.
- 윤민자, 『의미단위별 끊어읽기와 반복읽기가 영어 읽기속도 및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78쪽.
- 윤방하, 『영어를 앞에서부터 읽기 위한 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90쪽.
- 이국희·김명순, 『통번역 학습을 위한 중국어책』, 신론사, 2011, 7쪽.
- 이동은, 『중국어 끊어 읽기 교육 연구 - 고등학교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00쪽.
- 이인아, 『의미상 끊어 읽기가 고등학교 학습자의 영어 독해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85쪽.
- 이정순, 『한-중 동시통역의 효율 제고 방안 연구: 분절하기와 의미단위 최소화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4, 135~155쪽.
- _____, 『한-중 동시통역 기법 연구 - 반복, 단순화, 전환 기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한국통역번역학회, 2016, 131~156쪽.
- 이정희·김지영, 『최고급 단계 내용중심 한국어 읽기 수업의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3, 201~222쪽.
- 이정희·임재훈·박나리·박진옥, 『해외 한국어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현황 분석 연구』, 『어문학』 142, 한국어문학회, 2018, 431~472쪽.

- 이진미, 『한국인 학생들의 영어 끊어 읽기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81쪽.
- 임예영,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끊어 읽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69쪽.
- 임은빈, 『의미단위 끊어 읽기 지도가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93쪽.
- 임지희, 『중국어 끊어읽기 분석과 지도방안 설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44쪽.
- 정인영, 『소리내어 읽기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 문장 휴지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55쪽.
- 정혜 · 교우박, 『중국 대학 교양 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 『교양교육과 시민』 3,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21, 205~223쪽.
- 조영희 · 고혜정 · 김동일, 『초등학교 3, 4, 5학년 의미단위 끊어읽기와 빈칸채우기로 살펴 본 묵독유창성 비교연구』, 『서울교육대학교』 28(3),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7, 137~149쪽.
- 주진국, 『문장구역 수행 방법론상의 특징에 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10(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2, 211~227쪽.
- 최진석, 『의미단위 읽기와 독해전략 지도를 통한 독해력 향상 방안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71쪽.
- 한채현, 『고등학교 교과서 《중국어 I · II》 끊어 읽기 분석과 지도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83쪽.
- 허지운, 『동시통역을 위한 학습자 문장구역 전략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8(2),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20, 5~35쪽.
- 홍설영,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 - 학습자의 수행 및 회상 데이터를 결합한 예비조사』, 『통번역학연구』 16(1),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241~269쪽.
- _____, 『영-한 문장구역 교수 · 학습법 향상에 관한 질적 실행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237쪽.
- Cheol Ja Jeong, "The Translation Method for Teaching English: A Reflective Study of a Professional Translation Classroom",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24(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10, 19~40쪽.
- 蔡基剛, 『外語教育政策的冲突:複合型人才還是英語專業培養』, 『東北師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東北師大學, 2019, 1~6쪽.
- 陳知武, 『外語教學中“影子練習”效果的實證考察』, 『山東農業工程學院學報』 35(9), 山東農業工程學院, 2018, 181~184쪽.
- 古煜奎, 『同聲傳譯中的預測策略』, 『廣東外語外貿大學學報』 19(1), 廣東外語外貿大學, 2008, 35~38쪽.
- 靳雪竹, 『英-漢同聲傳譯中輸入語段切分的心理認知視角』, 『四川外國語學院學報』 23(3), 四川外國語學院, 2007, 126~129쪽.
- 齊小寧, 『影子練習法在日語基礎教學中的應用研究』, 『教育科學論壇』 12, 河北教育出版社有限責任公司, 2017, 194~195쪽.
- 蘇建紅 · 張潤萌, 『翻譯在外語教學中的作用』, 『考試與評價』 107(4), 全國高等師範院校外語教學研究協作組: 高等學校大學外語教學研究會, 2020, 37~40쪽.

閻廣芬·尚宇菲, 「新工科背景下拔尖人才培養模式的審思——基於精英學院學生身份認同的質性研究」, 『天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2(3), 天津大學, 2020, 206~213쪽.

葉君武, 「論口譯元記憶能力的培養」, 『海外英語』 23,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14, 167~170쪽.

張 超, 「日語精讀課程導入影子跟讀法的研究」, 『浙江外國語學院學報』 1, 浙江外國語學院, 2015, 76~80쪽.

Explore the Teaching Method on General Korean Reading using Sight Translation with Focus on Liaocheng University

Piao Lianyu*

General Korean, a compulsory course offered in Liaocheng University of China, has four semesters and 216 period. All of students are non Korean majors and have never studied Korean. This study attempts to design a scheme of Reading Methods in General Korean with mother tongue knowledge, so as to reduce the burden of students, stimulate their learning enthusiasm, and make it easier for students to learn Korean. This education method introduces sight translation used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making it easier for learners to learn Korean by using vocabulary and grammar interestingly and repeatedly learning about prior knowledge. The educational plan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s the pre-read stage, the read stage, and the post-read stage. In the pre-reading stage, it helps learners activate their schema, teaches vocabulary and grammar to read, and outline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text. In the reading stage, an understanding of the entire text is achieved through the sense group. In the post-reading stag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text is verified through the sentence section.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General Education Korean, Reading Methods, Sight translation, Sense group

논문투고일 : 2021년 10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4일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Liaocheng University